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회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0019 |
|----------|-------|

발의연월일 : 2026. 7. 16.

발 의 자 : 이상희 · 박준태 · 신성범  
임종득 · 김성원 · 최수진  
엄태영 · 박성훈 · 배준영  
한지아 의원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광주 여고생 피습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해당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 등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살인죄, 성폭력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5조제4항).

법률 제 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4항 중 “處罰하지 아니한다”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第155條(證據湮滅 等과 親族間의 特例) ① ~ ③ (생 략)</p> <p>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本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p> <p><u>&lt;단서 신설&gt;</u></p> | <p>第155條(證據湮滅 等과 親族間의 特例)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u>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